

## 물류혁신 고객감동 실천

특화된 제품 생산, 50여개 특허 및 실용신안 지적재산 보유



이 홍 기

(주)골드라인 대표이사 회장

최소한의 물류비용과 최대한의 공간활용을 실천하며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와 신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주)골드라인(대표이사 회장 이홍기)은 1989년 골드라인 금속공업(주)으로 설립됐다.

1993년 광주공장을 준공하고 이듬해 현재의 (주)골드라인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7년에는 여수공장과 분체도장설비공장을 준공, 2000년 광주 제2공장을, 2003년 중국청도에 골드라인물류기재유한공사 법인을 설립했다.

종합물류업체인 (주)골드라인은 현재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사업본부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당진공장을 비롯, 광주 및 여수, 중국공장을 연계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물류환경 변화에



▲ (주)골드라인 파렛트



▲ (주)골드라인 광주공장

다른 수요와 공급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하고 있는 업체이다.

그동안 (주)골드라인은 1999년 스틸박스에 대한 실용신안 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포장용박스, 적재용 파렛트의 미끄럼방지 장치, 경량형 플라스틱 접철식 상자 개발 등에 대한 특허를 마치는 등 물류표준설비 인증(플라스틱 파렛트 부문)을 비롯해 50여개의 기술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벽하고 특화된 제품생산으로 납기일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받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01년

에는 ISO 9001 KSA 9002 국제 인증 획득했으며 지난해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파렛트산업대상을 비롯, 한국경영인대상(헤럴드경제 2004), 대한민국물류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대상, 광주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 경영인대상(한국일보) 등에서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물류 혁신 기업이다.

최첨단의 설비와 노력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주)골드라인은

“물류표준화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판단 아래, 일관수송 시스템, 공급망관리와 같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되고 친환경적인 물류기기 공급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

(주)골드라인 관계자는 “전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실현을 목표로 작업은 ‘기계’가 감독 및 매니지먼트는 ‘사람’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물류혁신을 통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레로 금형 냉각 홀 메뉴

# GOLD LINE

폴더를 기존 8-WAY 방식에서 냉각효율을 높이도록 16-WAY로 확장, 6백50개에서 7백20개로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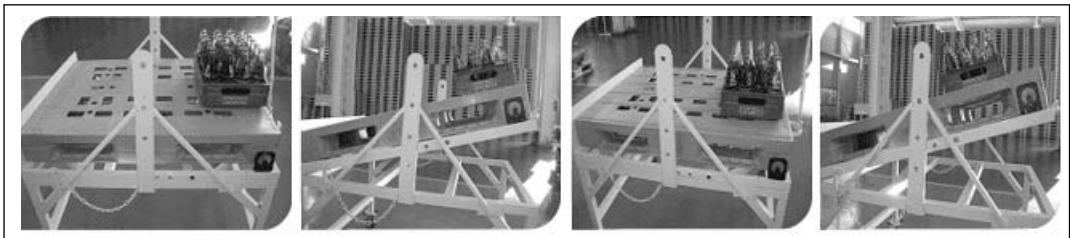
특히 (주)골드라인은 미끄럼 방지띠를 부착한 파렛트를 개발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지진다발 지역에서는 음료수나 주류제품을 적재한 트레이를 운반할 때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주)골드라인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파렛트를 양산,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을 통한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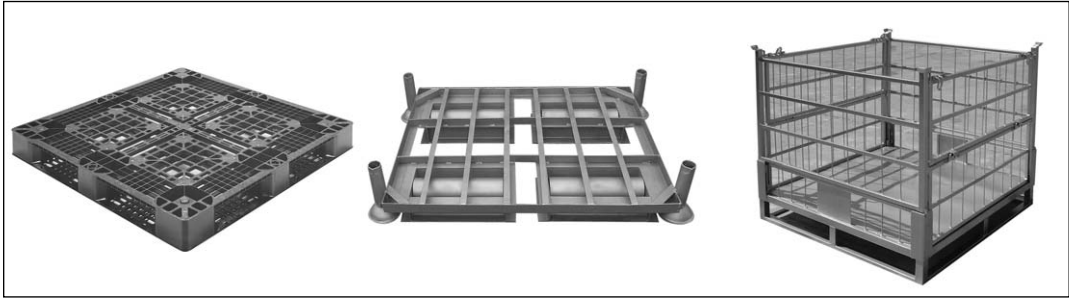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파렛트의 경우, 정상적인 수송 과정 이외의 악조건 속에서도 안전성 유지가 뛰어나 제품의 추락에 의한 파손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제품 수송의 안정화를 유지하여 회수나 반품사례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



▲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파렛트



▲ 수직 반송 시스템



▲ (주)골드라인 생산제품

으로 물류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외에도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열융착방식 자동 인쇄기기, 신업태 접철식 상자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주)골드라인은 유닛로드시스템과 무선인식 태그(RFID) 시스템 등을 적용한 최적화된 물류기기를 설계·제작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플라스틱 파렛트 및 철제 물류 물류기기 부문, 목재 포장물류 부문, 바이오 환경 사업부문 등을 포함해 약 1,200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주)골드라인의 성공에는 임원진의 '인재경영'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골드라인은 채용 초기부터

국내외 생산현장교육을 통한 실무능력을 체득하고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집중직무 개발 과정을 개설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내 물류 심포지엄, 외국어 및 한자능력 평가, 고속승진 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식 물류체계를 도입하기는 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물류혁신 고객감동의 물류 환경을 위한 정도를 열어가고 있는 기업이자 '물류기기의 명가' (주)골드라인은 올해를 '신성장 동력 비전 2010' 원년의 해로 정하고 중국 청도 골드라인-로테코 물류기계유한공사 합자투자 법인 활성화를 위한 북경과

상해 등 제3공장 설립 및 국책사업인 IT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삼성테크윈 컨소시엄 주요 참여 주체로 IT분야 물류용기 표준화 사업 공동추진 등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경제권역의 물류기기 이동과 관련한 세계적 브랜드가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기업환경과 고객들의 요구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매출 2천억원을 달성할 포부를 갖고 있는 (주)골드라인.

물류기기 및 시스템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을 표방하며 핵심기업으로서의 업계를 선도할 (주)골드라인의 행보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